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빙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설 연휴에 성경통독사경회 개최

내달 4~5일 교회당서 … 신약성경 일독

우리 교회에서는 설 연휴를 이용하여 신약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한다.

이 사경회는 설 연휴인 내달 4일(금)과 5일(토) 이틀간 개최되며 참가자는 신약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사경회는 낭독자가 앞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 참가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성경 낭독자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통독사경회에 참가자는 읽기에 편한 글씨가 큰 성경과 필기구, 색연필 등을 준비하면 되는데 성경책은 당일에

교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시간표는 제 1교시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제 2교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 3교시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둘째날인 5일엔 2교시까지만 진행된다. 12시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식사 및 휴식시간이다. 교회에서는 참가자를 위한 식사뿐 아니라 비상의약품을 준비하는 등 참가자를 위한 배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비는 식대를 포함하여 1만원이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만 받으며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70인전도대 연중 운영

전도위원회에서는 70인전도대 훈련과 활동을 연중 계속 한다.

70인전도대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70인전도대 훈련 프로그램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온 교우가 은사에 따라 전도대원, 기도대원, 봉사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도대원은 전도훈련을 받고 노방전도, 축

호전도, 병원전도 등 실제적인 전도활동에 나서며 태선자 관리와 양육을 책임진다.

기도대원은 전도대원들을 기도로 후원하게 된다.

봉사대원은 원활한 전도활동을 위해 차량 지원, 아기 돌보기, 물질 후원 등으로 전도에 동참하게 된다.

70인전도대의 2000년도 훈련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 테마전도 ■

23일(주일)은 가장 친한 친구 데려오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아무도 친구를 두고 혼자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다음 주일(23일)은 믿지 않는 친구를 데려오는 주일이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꼭 예수님을 소개하자. 예수님은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친구이시기 때문이다(요15:13). 이날 오시는 친구를 위해 교회는 예쁜 꽃송이를 준비했고 주님께서 미소와 칭찬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다.

※ 친구를 위한 기도 ※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 자기를 잊어버린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둠 중에 방황하면서 오늘 이 밤에 자기를 잊어버린 친구도 있습니다. 오! 목자되신 주님, 한 밤이 지났지만 바로 잡지 못한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길잡이이신 주님, 친구의 길을 바로 잡아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며 또한 저의 친구를 도울 수 있으리라 굳게 믿나이다."

구분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특별행사
1월	송구영신예배	무엇이 전도인가?	전도는 쉽지 않다	주님이 찾으시는 전도자	전도는 예의있게 해야 한다	
2월	설날	전도자가 급히 갖추어야 할 것	성경이 말하는 전도메시지	전도의 동기·내용·방법		
3월	반드시 해야 할 전도사역	전도는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사단의 방해와 전도자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		순교유적지 답사
4월	전도 간증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길趺한 영혼을 찾으라	개인 양육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구체적 메시지를 주신다	지원교회 지원전도
5월	하나님은 불신자 견질 길을 주셨다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고 일하신다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전도대원 특별수련회
6월	전도 간증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방법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전도계획 5가지		지원교회 지원전도
7월	개인 전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증거	관계중심 전도	여름방학	
8월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농어촌전도대 파송
9월	복음화운동의 자격자	추석연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예수님은 무한하시다		산상기도회
10월	생활 전도(1)	생활 전도(2)	생활 전도(3)	전도인의 수칙(1)	전도인의 수칙(2)	특수선교현장 방문
11월	전도인의 수칙(3)	전도의 깨달아야 할 것 3가지	올바른 전도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잔치
12월	성경에 나타난 복음화 전략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간증 및 결산	

이사야 강해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

이사야 31장 6·9절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는 민족이든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므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1. 민족 국가가 사는 길

민족과 국가가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계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저들이 비록 패역의 길을 갔다고 해도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뿌리를 찾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백성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지고한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러므로 타락한 자손들이 야훼께로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산다고 외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말보다 그들의 죄가 큰 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재촉합니다(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은 범죄의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죄를 버리자 않고는 나라가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죄가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죄를 벼려야 합니다(약 1:19 - 21).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라고 해도 버릴 것은 벼려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자의 정신입니다. 각사람이 남의 우상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우상을 벼려야 합니다. 이것

을 개혁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합니다. 비록 아깝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벼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벼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이 나라도 개혁이 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버릴 수만 있다면 이나라는 당장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목을 곧게 하

았수르의 고관들은 깃발만 보고도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들은 이같이 세운 깃발만 보고도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보고도 놀라서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빛이 되시고 원수에게는 소멸시키는 불로 나타나십니다(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온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이종윤 목사

고 나오는 한 교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29 - 30). 회개는 항상 죄악이 들끓을 때 벼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단을 내리지 않고는 국가도 교회도 살 수 없습니다.

2. 민족 국가가 망하는 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에 망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앗수르군은 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보이는 사람의 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군 십팔만오천 명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칼로 망하게 됩니다.

장정, 곧 군인들은 복역하는 자가 되어 패배자가 되고 부자유자가 됩니다(8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9절). 반석은 앗수르의 왕을 말하며

이같은 하나님에 시온, 곧 예루살렘에 계셔서 자기 백성은 인도하시고 적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쳐들어오던 적은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위세를 보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의 칼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곧 교회는 세상 사람의 안목에는 약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 배경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 세상이 불의로 대하면 화를 받게 됩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를 펼박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시온의 불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우리 부서는 사랑부

찬양위원회

영광의 직분 은혜로 감당하며

이영기(장로, 찬양위원회장)

할렐루야 새 천년의 새해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맞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부족한 저희들이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항상 즐거워하게 하시니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렇게도 안타깝던 국가적, 경제적인 위기감이 팽배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서울교회 예배당 건축의 대역사를 계속 진행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찬양위원회에서는 더욱 성숙되고 영적 예배를 앞장서서 드리기 위해 성스러운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찬양준비와 연습에 앞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생활 모두를 묶어 찬양의 연속으로 삼고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00년에는 월요일 새벽예배 후 별도로 찬양대를 위한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코자 합니다.

우리는 묵묵히 찬양대 자리를 지키며 길을 잊어버린 대원들을 위해서도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금년 연말에 계획 중인 새 예배당 입당에 맞추어 새로이 변화되고 각 찬양대가 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6개 찬양대와 3개 중창단 위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성숙한 찬양의 경지에 더욱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0년도 서울교회 각 찬양대원으로 임명 받은 모든 대원들이 찬양대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 겹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빛나는 전통이 있는 서울교회 찬양대와 찬양위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무를 맡겨주신 주님께 겹손히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울교회 찬양대원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이 있는 교회, 영적 찬양을 부르는 교회, 성도의 신앙과 삶 전체가 찬양으로 가득 찬 은혜로운 서울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부

사랑받을 분은 사랑부로 오세요

윤봉준(장로, 사랑부 부장)

서울교회에 사랑부가 있다는 것은 자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사랑부에서의 봉사를 아주 특별하고 힘든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부에는 일꾼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아울러 봉사하는 일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사랑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은 비장애인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교제해야 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사랑부에서의 봉사가 다른 부서와는 다른 독특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깊고 신실한 사랑의 일꾼을 기다립니다.

사랑부의 새해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첫번째는 '사랑의 가정 만들기'입니다. 나아, 출신, 장애 형태를 구별치 않는 혼성반을 구성하여 서로 돌보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가족되어 주기를 실현하여 '받는 사랑' 보다 '베푸는 사랑'을 훈련받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가(在家) 장애자 수용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말에 입당하게 될 새 예배당에는 사랑부실이 1층에 자리 잡아 최고 최적의 조건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사랑부 학생들은 대부분 2개 시설 수용자들이 대상이지만 새 예배당 시대에는 그들뿐 아니라 교회 주변 지역사회와의 재가 장애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울교회의 사랑부는 모름지기 지역사회 장애자 복지 프로그램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한 해로 삼을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부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어 '장애자와 더불어 살기'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큰 행사나 프로그램을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본을 다지는 해로 삼을 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구체적인 목표는 한국 교회 내에 장애자 프로그램 행하기, 교회에서의 장애 신앙인 위치 세우기와 사회적으로 건강한 장애인 복지사회 이루기 등의 효과

를 기대합니다. 위의 세 가지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랑을 주는 사랑부"가 되려고 합니다. 지켜보아주십시오. 사랑부 교사와 학생들이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큰 목표에 동참할 동역자 여러분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선교회

새 희망과 겸손함으로

김진호(집사, 아브라함선교회 부회장)

아브라함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의 부진함을 접어 두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적부에서 모두 발췌해 보니 아브라함선교회원으로서의 적령자는 12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작년 말 제 1차 총회를 갖기로 하고 선교회원 전원에게 연락을 했으나 신입회원이 지극히 작게 온 부진한 총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신복음전파에 가일충 분발하여 2020년 민족 75%를 복음화하는 일에 기여하는 전도 역군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하여 교회갱신에 이바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비겁한 자일 것이며 거짓과 위선 속에 사는 자들은 남을 영원히 속일 수 없으니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각 신앙의 특색과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선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선교회원 모두가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선교회는 연로한 회원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원들은 항상 겸손하고 친절해야 할 것이며 일부 깊은 성도들의 본분잃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합심하여 힘써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해야 하겠습니다.

미자립 농어촌 100교회 후원 손길

총 107교회 지원 예정...현재 62개 교회 결연 확정

전도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어촌 미자립 100 교회 지원운동(이하 '100교회운동')에 참여 할 후원자 접수를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후원하고자 하는 농어촌 교회는 총 107개 교회로 선정되었다. 지난주 현재 62개 교회와의 결연이 확정되었다.

올해 100교회에 유통에 동참하고자 신청한

후원자를 살펴 보면 개인과 가정이 23.5구좌,
다락방이 0.5구좌, 교회학교 2구좌, 남선교회
가 12구좌, 여선교회 21구좌, 기타 기관이 3구
좌이다.

농어촌 한 교회 후원금(1구좌)는 10만원으로 매월 셋째 주에 농어촌 각 교회로 송금하게 된다.

100교회운동은 우리 교회설립 3주년 기념
일에 결의되어 1995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도
시화 추세 속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어촌
과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서 이미 있는 농어촌
교회에 힘을 주어 자립하도록 돋자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제작: 100교회연盟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1	계곡제일교회	최승위(전)	홍순복
2	고향교회	김권환(전)	하인선 · 남태순
3	곧천리교회	권오익(목)	이옥녀 · 김병호
4	광곡교회	장대호(목)	임상현
5	굴암교회	최효임(전)	청년부
6	금성교회	정성도(목)	빌립남선교회
7	금평교회	오성현(전)	김현주
8	남창제일교회	김길태(목)	전기섭 · 원영애
9	내도중앙교회	정장현(목)	전기섭 · 원영애
10	동교교회	이창희(전)	전수자 · 서초1,2
11	동화교회	전갑희(목)	최재규 · 천정화
12	둔병교회	류한록(목)	새가족부
13	마장교회	김명복(전)	윤봉준
14	마장교회	주추신(전)	정하자
15	명계교회	박점용(목)	지성희
16	모악제일교회	안양욱(전)	한정아
17	목소교회	백현기(목)	신순우 · 김복순
18	목포열린교회	장경호(목)	신순우 · 김복순
19	박산교회	황성배(전)	신순우 · 김복순
20	봉정교회	정창석(목)	신순우 · 김복순
21	부남명성교회	윤성목(목)	신순우 · 김복순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22	북면중앙교회	김주철(목)	이남성
23	산야교회	이형근(목)	박순우
24	산전교회	김영규(목)	이영기
25	삼진교회	계용권(목)	제1권사회
26	상리교회	천광훈(목)	오정수·이영희
27	새뜸교회	김의일(목)	노문환
28	새화순교회	정종복(목)	베드로남선교회
29	서하교회	이규성(목)	베드로남선교회
30	사광교회	강순모(전)	엘리야남선교회
31	성루교회	이진구(목)	모세남선교회
32	세광교회	천상봉(목)	아브라함남선교회
33	소연평교회	안희선(목)	교역자회
34	송래교회	이용빈(전)	바울남선교회
35	수락교회	이창규(목)	바울남선교회
36	승원교회	김종권(목)	바울남선교회
37	시온교회	임대준(전)	바울남전도회
38	신덕교회	유재운(전)	바울남선교회
39	신진교회	조원식(목)	바울남선교회
40	신촌교회	이성규(목)	도르가여전도회
41	신촌교회	권영관(목)	도르가여전도회
42	압곡교회	서양수(목)	뵈뵈여전도회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43	양평교회	이순화(전)	뵈뵈여전도회
44	언양영신교회	오주철(목)	뵈뵈여전도회
45	여천동교회	정철기(전)	루디아여전도회
46	연보리교회	정장연(목)	루디아여전도회
47	영광교회	이양재(전)	마리아여전도회
48	예덕교회	한상인(목)	마리아여전도회
49	운암제일교회	김상중(목)	마리아여전도회
50	율곡교회	임산덕(전)	마리아여전도회
51	월승교회	김은진(목)	마리아여전도회
52	월평성광교회	강용태(전)	에스더여전도회
53	은성교회	소정의(목)	에스더여전도회
54	주왕산교회	이희구(전)	에스더여전도회
55	천복교회	이환용(전)	한나여전도회
56	청풍은성교회	이호근(전)	사라여전도회
57	춘양동아교회	이종순(전)	사라여전도회
58	태백서부교회	주영철(전)	사라여전도회
59	행정교회	홍두원(전)	정동학·김복순
60	화평장애교회	김구열(목)	사라여전도회
61	혹석교회	홍중기(목)	사라여전도회
62	수복교회	김기용(목)	사랑의회

2000년 1월 9일 현재(후워자는 무수)



- 
 - * 이종윤 목사는 20일(목)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사회와 21일(금)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한다.
 - * 이미숙 성도(새가족부)는 작년 12월 19일 득남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신용식 · 김신영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빌립남선교회는 17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협장방문을 한다.

서울주간기독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2. 70인전도대 활동과 태신자 전도를 위해
 3. 설 연휴에 개최할 성경통독사경회를 위해
 4. 미주본교 학교 세미ナー 교육 사업이 되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회약도

